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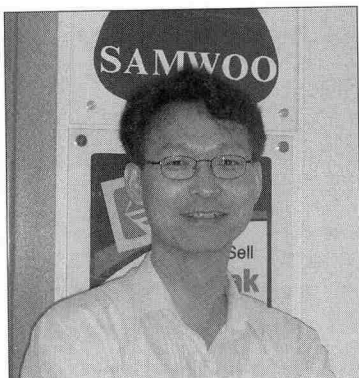
광전자부품 및 산업설비용 특수 광부품의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화 시도

광전자부품 전문업체 삼우과학

삼우과학(대표·배응호)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 일본 니콘의 고급현미경을 비롯하여 고해상도 연구용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주변기기를 공급해 온 유통업체이다. 최근엔 다년간에 걸쳐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 제조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광부품의 토탈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등 인력보강과 함께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고급현미경 및 관련 기자재를 주로 공급해 온 삼우과학이 그간 축적한 기술력 및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 솔루션 업체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삼우과학의 배응호 사장.

1996년 배응호 사장 혼자서 '1인 3역'을 해내며 시작한 삼우과학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연구소 및 학교 등에 고급현미경을 비롯하여 고해상도 연구용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가공 및 검사용 광학 부품을 개발·공급해왔으며 어느덧 광전자부품 전문 공급업체로서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

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 현미경 시장은 니콘을 비롯해 일본의 올림푸스, 독일의 자이즈·라이카 등이 경쟁 중이며, 니콘 현미경은 삼우과학외에 몇 개의 업체에서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시장에서 니콘 현미경이 안정된 점유율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구어낸 데 있어 삼우과학의 기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삼우과학이 처음 영업을 시작할 당시 산업계의 패러다임은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의 변화가 한참 진행 중일 때였다. 연구용 현미경에 들어가는 카메라 역시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교체가 진행 중이었는데, 삼우과



학은 현미경외에 연구용 CCD카메라 여러 종류를 수입·공급하며 현미경 카메라의 디지털화에 앞장섰었다.

현미경에는 광학현미경을 비롯하여 원자현미경, 전자현미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산업현미경이 있는데 삼우과학은 그중 형광현미경등의 생물현미경을 주력 아이템으로 하여 연구소·대학 부설 연구소 및 실험실·대학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고객확보를 위해 배웅호 사장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중점을 두는 것은 각종 학회 전시회 및 세미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한 학회를 기준할 때 전공 및 분야별로 100여 개가 넘는 많은 학회가 있는데, 많게는 평균 한 달에 2번 정도 학회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영업을 하러 간다기 보다 학회 전시회나 세미나를 통해 시장 동향과 흐름 등을 파악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관련 제품이 고급기자재이다 보니 각각의 부품들의 기능이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배웅호 사장은 오랜 기간 경험과 지식을 통해 습득한 미세한 성능의 부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는 식의 맞춤형 영업을 펼치며 거래 선을 구축해 왔다.

현미경에는 다양한 부품 및 액세서리가 들어 가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부착되는 만큼 마이크로, 매크로 등 다양한 렌즈류와 형광필터, 광학 간섭필터 등 각종 고성능 필터류, 셔터 등 취급 품목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3년 전부터는 연구용으로 주로 쓰이는 고속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는 광물분석·해양오염·적조 현상조사 등 다양한 연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광분석기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삼우과학에서 공급하는 분광분석기는 포터블 기능으로 되어 있어 장소나 기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성이 매우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삼우과학에서는 이밖에 기존 니콘현미경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대상물의 형광 마이크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저 잡음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하여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와 측정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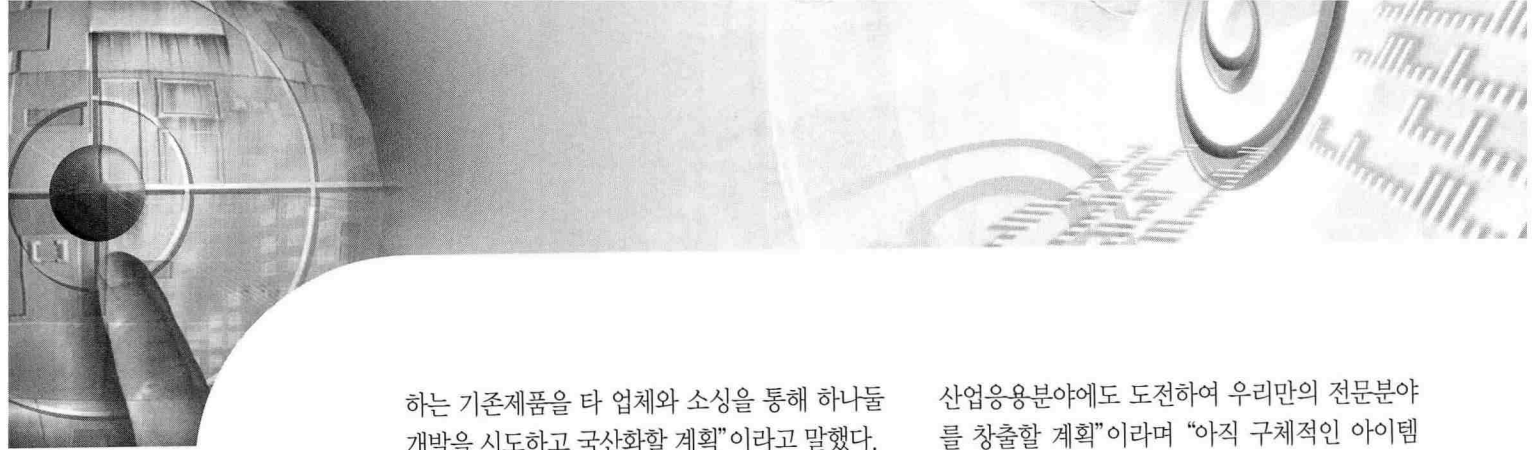
제품 수입·공급뿐 아니라 개발에 주력, 전문제조업체로 발돋움 할 터

삼우과학의 이상길 이사는 “고급기종에 들어가는 광학부품들이 점차 크기가 작아지면서 고성능을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현재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DOE나 HOE 렌즈 등을 필요로 하는 시장상황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결국 이런 것들이 멤스(MEMS)기술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 기술은 소형화는 물론, 집적화, 저전력화, 저가격화 등의 우수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용 및 산업분야, 바이오 및 의료분야, 통신 및 광학분야, 우주 및 방위산업분야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크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기술이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이사는 “현재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한 몸체에 다양한 광학부품이 들어가게 하는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옵틱스(Hybrid Microoptical) 분야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정부기관 연구소나 대학 연구실 등 외에 시장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삼우과학에서는 수입에 의존



▶ 한 자리에 모인 삼우과학 직원들. 회사의 외형만큼 식구가 늘어 4명의 직원들이 모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기존제품을 타 업체와 소싱을 통해 하나들 개발을 시도하고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급 광학부품 및 광 응용 분야의 '해결사' 역할의 광학업체로 커 나갈 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삼우과학이 최근에는 고급 레이저를 비롯하여 광학 센서 분야 등 광 응용분야에도 뛰어 들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요즘 한창 고급화되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레이저 가공설비에 필요한 디스크 레이저 및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의 공급을 시작했다. 또한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접합 및 레이저 드릴링 설비 제조용 고출력 장비, 대구경 특수 광학계의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레이저 제작사를 위한 안정된 펄핑용 다이오드 레이저 및 미용·치과 치료기용 다이오드 레이저의 공급도 서두르고 있다.

배운호 사장은 "삼우과학이 그간 연구용 디지털 이미징 분야에서만 역량을 발휘했으나 향후에는 그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응용분야에도 도전하여 우리만의 전문분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련 전문 업체와 하나들 소싱을 통해 개발에 착수하고 나아가 공장까지 갖추어 제품 국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광학전문 제조업체로의 탈바꿈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토털 솔루션 제공 업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회가입과 관련하여 배운호 사장은 "현재 협회에 다양한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협회에서는 산업계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이사는 "광학이 전자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협회 회원사 분류를 보면 카메라, 복사기, 레이저 등 단품 위주로 분류·구성되어 있다."며 "현재 제품군으로 나뉘져 있는 회원사 분류를 산업군으로 크게 분류하고 여기에 전자, 모듈, 멤스 등 새롭게 다양한 품목의 업체들을 가입시키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삼우과학에서 취급하는 연구용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현미경, 레이저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들